

## 뱀에게 사랑받기

\*

싱크대 아래 갈색의 액체가 고여있다.

완전히 썩었네.

완전히 썩었어.

형부와 나는 얼굴을 마주하고 중얼거렸다. 거기서는 고약한 냄새가 났다. 싱크대에서 물이 흐르고 넘쳐 나무로 된 장판이 결국 썩어버린 것이다. 원래대로라면 장판을 다 들어내야 하지만 그건 꽤 큰 공사가 될 테었다. 우리에게겐 그럴 만한 돈이 없었다. 형부에게 정확히 얼마가 있는지는 알 수 없었고 만약 있더라도 그는 돈을 지불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그런 사람이라고 언니가 줄곧 말해왔었다. 하지만 이 집은 언니와 형부의 집이기 때문에 나는 불평할 수도 없다. 집은 낡았고 험하게 쓰인 흔적이 군데군데 남아있었다. 싱크대 아래가 아니더라도 장판의 구석구석이 까지고 일어나 얼룩지고 있었고 벽지에는 곰팡이 자국이나 벌레가 죽은 흔적 같은 것들이 그대로 남아있었다. 그래도 낮이면 해가 잘 들어 집이 환해지는 데다 창밖으로 공원이 보인다는 점에서는 좋은 집이었다. 건조하고 밝은 집. 낮에는 전등을 켜지 않아도 되는 집. 하지만 언니는 이 집을 두고 떠나버렸다.

요즘은 형부와 꼬박꼬박 하루에 한 번은 무조건 산책을 나간다. 집에서 보이는 그 공원으로. 우리가 사는 108동에서 공원까지는 아주 가깝다. 횡단보도 하나만 건너면 된다. 그럼 저수지를 빙 둘러 만들어진 공원이 있다.

공원 입구 앞에는 작은 광장이 있고 양옆으로는 저수지를 감싸고 길이 나 있다. 사람이 많지는 않다. 이용하는 사람이 적어서 그런지 꾸준히 관리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았다. 나무와 수풀 더미 근처는 썩어 떨어진 잎들로 가득했다. 길이 꺾이는 곳마다 뱀 조심 표지판이 꽃혀있었다. 광장의 구석에는 누군지 모를 조각상도 세워져 있다.

형부와 걸으면서는 별 쓸데없는 이야기만 나눈다. 우리의 대화는 이리저리 움직이다 아주 가끔, 정말 필요하고 긴급한 이야기에 도착하는데 그때의 분위기는 정말이지 어색해서 견디기가 힘들다. 하지만 그걸 막을 수는 없다. 아무리 안간힘을 써도 대화는 흐르고 흘러 필요한 이야기로 가라앉고야 만다. 오늘도 마찬가지. 아직은 한 번도 본 적 없는 뱀과, 썩은 장판 아래 살고 있을지도 모르는 구렁이에 대한 전설 같은 것들에 대한 대화를 나누다 보면 마지막에는 꼭 썩은 장판 위에 붙일 시트지의 색과 같은 긴급한 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결국은 형부에게 욕을 쏟아붓고 떠나버린 언니에 대해 생각하거나 침묵하거나 이야기를 꺼내게 되는 걸 막을 수가 없다.

언니가 떠난 건 술을 잔뜩 마신 주말의 일이었다. 언니와 나, 그리고 형부. 이렇게 셋이서 함께 마시고 있었다. 언니와 형부는 술에 취하더니 아주 사소한 것으로 농담인 듯 아닌 듯

실랑이를 했다. 나는 잔뜩 긴장한 채 두 사람의 사이에서 술을 마셨다.

이것 봐, 이 사람은 늘 이런다니까?

언니가 올분에 차 말했다.

내가 뭘?

형부는 웃으며 답했다. 언니가 불만스러워하는 지점 중 하나가 바로 저것이였다. 늘 웃음으로 무마하려고 한다는 점. 그러면 안 될 상황에도. 그러면 안 되는 상황이 무엇인지 잘 구분하지 못한다는 점. 그게 언니가 소름 끼치도록 싫어하는 점이다. 형부는 술을 마시고 마구 싸우다가도 진지할 줄을 모른 채 농담하듯 언니의 말에 답했고 언니는 화가 났다. 결국 언니가 떠나버렸다. 그렇지만 나는 형부의 그런 점이 좋았다. 좋아서 나 역시 웃어버리고 말았다. 게다가 나는 거기서 누구에게도 화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웃었는데 그게 상황을 더 나쁘게 몰아갔다. 언니는 떠나며 차라리 너 같은 여자와 결혼했다면 더 나았을지도 몰라, 하고 내뱉었다.

언니 자신이 나 같은 여자와 결혼했다면, 하는 말인지 형부가 나같은 여자와 결혼했다면, 하는 말인지. 또 나와 같은 여자란 어떤 것인지. 형부는 웃음을 그쳤고 나와 남겨졌다.

가버렸네. 형부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작고 무감각했다. 우리는 술을 마시던 바닥에 앉아 우리가 마신 빈 술병에 둘러싸인 채 가만히 있었다. 불이 꺼진 거실에. 심장이 귀에서 뛰는 것처럼 맥박 소리가 크게 들려왔다. 나는 늘 술을 마시면 그렇게 된다.

열어둔 창 너머로 오토바이가 질주하는 소리, 지나가는 사람들이 가위바위보를 외치는 소리, 누가 욕을 중얼대는 소리 같은 게 섞여서 들려왔다. 어쩌면 그 안에 언니가 있을지도. 진작에 지나갔을지도.

언니가 돌아올까?

형부가 내게 물었다. 나는 알 수 없었다. 언니가 화가 나 자리를 떠버린 적은 그 전에도 몇 번 있었다. 그러면 바깥을 걸어다니다가 밤이 깊을 때쯤, 자정을 조금 넘겼을 때 돌아오곤 했다. 하지만 이미 자정이 넘어버렸고 평소랑은 다르게 언니는 큰 가방을 메고 나갔다.

형부는 조명을 등지고 앉아 있었기 때문에 표정이 잘 보이지 않았다. 대신 형부의 곧은 코나 납작한 이마, 굽은 어깨 같은 것들이 보였다.

형부의 코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도 않았고 언니나 나처럼 가운데 코 뼈가 볼록하게 튀어나오지도 않았다. 쪽 뺨고 하얀 코. 그런 코의 모양 때문인지 형부는 일이란 것과는 거리가 멀게 생겼다. 단지 백수처럼 놀고먹을 것처럼 생겼다는 뜻은 아니다. 그는 꽤 멀끔하게 생겼다. 머리는 조금 길고. 숏컷으로 머리를 친 나와 거의 비슷한데 그보다 조금 더 길다. 뒷목을 살짝 덮은 그의 머리카락. 그는 자기 보호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처럼 생겼고 실제로도 어느 정도 그렇다. 그게 그를 일과, 세상과 먼 사람처럼 보이게 한다. 한 박자씩 느린 말과 행동들이나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눈동자 같은 것들이.

나는 그가 불쌍했다.

나는 일을 하기 위해 집에서 나왔다. 내가 켄스시에서 열심히 초밥을 나르고 손님을 맞는 동안 형부는 거실에서 자고 있을 것이다. 켄스시는 한 이 년 전쯤부터 내가 일하고 있는 초밥집으로 집과는 꽤 거리가 있다. 나는 어디에서 일하거나 곧잘 첫인상과는 다르게 우리와는 맞지 않는 것 같아, 근무 중에 자꾸 무슨 생각을 하는거야? 하고 잘리곤 했는데, 유일하게 이곳 켄스시에서만은 오래도록 일하고 있다. 딱히 두드러지는 특징이 없는 내 얼굴은 그

렇기 때문에 안전하고 성실한 느낌을 주고 그런 기대를 하게 만든다고 했다. 막상 일을 하게 되면 정반대라는 것이 금방 들통나지만.

그런 식으로 선생님 소리를 들으며 일하던 어학원 보조 교사에서 잘린 적도 있었다. 물리 치료사였던 한 남자와 같이 살 때였다. 그는 큰 손을 가지고 있었다. 내가 힘들다고 하면 내 몸의 아픈 구석을 잘 풀어주곤 했었다. 그런 식으로 내 몸을 책임지고 있었고. 그럴 때면 나는 그를 선생님, 하고 부르곤 했었는데. 그는 나 말고도 많은 환자들에게서 선생님 소리를 들었고 나는 그게 참 좋았다.

그가 병원으로 출근하고 나면 나도 학원으로 일하러 갔다. 거기서 나는 초등학교생으로 이루어진 반 하나를 맡았다. 그러다보니 같이 일하던 직원들도 하나 둘 나를 선생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그렇게 선생님이라고 불리게 되는 때가 종종 생겼지만 나를 부르는 선생님 소리에는 별 감흥이 없었다. 일이어서가 아니었다. 나는 오로지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일에만 무언가를 느꼈다. 그 남자가 아니더라도.

젠스시에서는 선생님 소리를 들을 일도 누군가를 선생님이라고 부를 일도 없었다. 사장님이 있기는 했지만. 사장은 아침마다 커다란 고무 통을 들고 수조에 있는 광어를 잡았다. 그럴 때면 나는 마른 천을 들고 가게의 통유리창을 닦았다. 바람에 날리는 휴면지가 창에 물방울 자국을 따라 달라붙어 있었다. 창 너머로는 사람들이 바쁘게 지나다니고 있었다. 도로를 따라. 갈 곳이 있는지 없는지. 언니도 여전히 어딘가를 걸어다니고 있을지도 몰랐다.

다시 집으로 돌아오니 형부가 나갈 때와 같은 모습으로 이불 위에 누워 나를 맞아주었다. 바닥에 이불을 깔고 자는 형부는 절대 그걸 다시 개지 않았다. 잘 때만 누워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금처럼. 내가 외출했다 돌아오면 그는 거기 누워 왔어? 하며 인사를 건넨다. 평온한 목소리로. 이불 위에 늘어진 채. 옛날이었다면 우리는 같이 나가 언니를 맞기도 했을 텐데.

언니와 형부의 집은 14평짜리 복도식 아파트로 거실에 안방이 하나 딸려있는 구조였다. 원래는 언니와 형부가 함께 잠들었지만 이제는 손님인 내가 안방에서, 형부가 거실에서 따로따로 잠을 잔다.

이 집은 꽤나 고층이라 복도를 걸어 다닐 때마다 부는 바람에 몸이 괜히 휘청거리게 되었다. 명치께까지 올라오는 복도의 난간에 몸을 걸치고 머리만 바깥쪽으로 빼서 내려다보면 차도 사람도 나무도 모두 손가락 한 마디 크기로 보였다. 거기서는 우산을 들고 걷는 사람도 아무일 없이 걷기만 하는 사람도 모두 우스워 보인다. 언니가 집을 떠나기 전까지는 언니도 매일 그곳에서 보이는 길을 걸어 출근하고 집으로 돌아오곤 했다. 그럼 나와 형부는 가끔 그곳에 서서 언니가 퇴근하는 모습을 지켜보곤 했다.

형부도 일을 하긴 한다. 이부자리 위에 누여져 있지 않을 때는 식탁에 앉아 노트북으로 일을 한다. 디자인을 했었다고 하던데. 고정적인 수입원은 없지만 간간이 일이 생기는 모양이었다.

집으로 돌아가니 형부가 식탁에 앉아 노트북을 뻗히 쳐다보고 있었다. 나는 그에게 떠보듯이 물었다.

요즘은 뭘 해요?

형부가 앉아있는 식탁을 물티슈로 닦으며 내가 물었다. 내 움직임을 보더니 형부도 노트북을 접고 그릇들을 펼쳐놓았다. 오늘 저녁은 돼지 족발. 우리 둘 다 요리와는 거리가 멀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식사는 밖에서 사 온 것으로 해결했다. 내가 일을 나가는 날 가끔

은 초밥을 사 먹고. 그나마 요리와 가까운 쪽은 형부였지만 그는 언니가 떠난 뒤로 요리를 포함한 많은 걸 귀찮아했다.

알잖아, 자고 먹고 다시 자지.

형부는 또 농담을 했다.

아니,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고.

아아, 일? 별건 아니야. 도시의 마스코트를 만들지.

형부는 내가 사온 족발의 포장을 풀며 무심한 얼굴로 답했다. 비닐을 뜯듯이 포장을 풀어 헤치더니 동봉된 상추쌈을 손에 쥐고 행귀다 줄게, 하고는 주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저건 언니의 습관이었다. 바깥에서 들어온 채소는 직접 행귀야만 마음이 놓이는.

우리 시의?

떨어지는 물소리 사이로 내 말을 들은 형부가 싱크대 앞에 서서 고개를 끄덕였다. 넓은 냄비에 물을 받고 식초를 풀어 상추를 씻는 형부.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의 마스코트를 만드는 일은 쉽지 않은데, 이곳이 뱀으로 유명하기 때문이다. 보통 뱀이 좋은 이미지는 아니니까. 실제로 가을의 비오는 날이나 안개 낀 날이면 사람들이 뱀에 물렸다. 독이 있는 뱀도 있었고 없는 뱀도 있었다.

그 마스코트, 혹시 뱀처럼 생겼어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막 둥그란 눈 달려있고? 두 발로 서있고?

뱀에게는 발이 없지만. 배로 기어다니지만. 시의 마스코트란 원래 조금은 귀엽고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주어야만 하니까. 그러나 형부는 고개를 저었다.

그럼?

보통은 오늘 처럼 궁금한 점이 많지는 않은데 왜인지 뱀 마스코트에 꽂혀 질문을 멈출 수가 없었다. 아주 구릴 것 같기도 하고, 아주 멋있을 것 같기도 하고. 물이 떨어지는 상추를 들고 형부가 식탁으로 돌아왔다. 아무 생각이 없는 것도 같고 웃음을 참고 있는 것도 같은 표정이었다. 그러나 답해줄 마음은 없어 보이고 그저 밥 먹을 준비에 열심이었다. 흠, 하더니 맥주를 사왔어야 하는데, 하고 나를 잠깐 쳐다볼 뿐이었다.

나는 다시 화제를 뱀으로 돌렸다.

뱀은 기어다니잖아요.

그렇지.

축축하기도 하고.

뭘, 어떨 땐.

거짓말도 잘하고.

그 말에 형부는 대답이 없었다. 그새 상추와 고기를 입에 욱여넣는 중이었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뱀한테.

그런가?

형부의 팔목을 따라 상추의 물기가 흘러내렸다. 팔꿈치에서 떨어진 물방울들이 책상 한구석에 고이기 시작했다. 나도 질문을 멈추고 먹기 시작했다. 심심한 저녁이었다. 바깥에선 바람이 세게 불었다. 창 너머로 나무가 휘어지며 흔들리는 것이 보였다. 형부의 어깨 너머로는 여전히 널브러져 있는 그의 잠자리가 있었고. 거실에는 소파도 없었다. 거실에 소파가 없는 것은 티브이가 없는 탓이었고 티브이가 없는 것은 언니 때문이었다. 그런 것 없이도 이미 볼 것은 죄다 보고 있으며 있어야 할 것 같기에 있어야 하는 가구 같은 건 들여놓지

않겠다는 언니의 주장. 자신이 꾸린 가족의 집에는 특히. 하지만 이럴 땐 티브이가 필요한 게 실감된다. 공통으로 시청한 무언가 없이는 대화가 이루어지질 않을 때……

\*

형부가 신발을 질질 끌며 걸을 때마다 먼지가 부영계 일어났다가 가라앉았다. 그는 불량하고 구부정한 자세로 목덜미에 땀을 흘리고 있었다. 그가 지금 신고 있는 신발도 언니가 신던 것이었다. 언니가 화가 나서 집을 잠깐 떠나버린 건 몇 번 있었던 일이었다. 그럼 언니는 무작정 걸었다. 화가 풀리든 그렇지 않든. 우리도 언니를 찾는 하나의 의례 같은 것으로 공원을 걸었다. 언니 없이 우리 둘만 같은 집에 사는 것이 무언가 이상하단 건 알고 있지만 어쩔 수 없다. 나도 형부도 집을 구할 돈이 없기 때문이다. 돈이 없는 것은 둘째 치더라도 우리 둘 다 지금 이 상황에 나름 만족하고 있기도 했다. 언니가 사라져 무언가 빠져버린 듯 일상이 뒤틀리고 있다는 건 느끼고 있지만, 그리고 무엇인지 모를 것에 미안하지만 동시에 그 허전함은 어딘가로 여행을 온 것만 같은 느낌을 주기도 했다. 뒤틀린 일상.

형부와 단들이 산책을 나선지 일주일즈음이 되어가는데 여전히 각자 신발을 신고 문단속을 하고 같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갈 때는 숨이 막힐 정도로 어색하다. 그 어색함이 싫어서 낮 시간 동안 미리 대화거리를 생각해두기도 했다. 일은 힘들지 않은지, 오늘 저녁은 무얼 먹을지, 언니 없이 지내는 기분은 어떤지, 무언가 많이 달라졌다고 느끼는지, 보고싶은지와 같은 것들. 물론 소리내어 묻지는 못한다.

형부는 대개 좋은 대화상대다. 어떤 쓸데없는 소리를 해도 곧잘 맞장구를 쳐주고 상대방을 무안하지 않게 해주기 때문에. 다만 언니의 이야기가 나오면 여전히 말을 돌리거나 침묵에 빠진다.

일은 힘들지 않아?

오늘은 형부가 먼저 말을 걸어왔다. 고개를 끄덕이자 형부가 계속해서 말을 잇는다. 나는 말야, 요즘 뱀을 탐구하고 있거든. 전에 말했던가? 마스크트로 만드는 일 때문에.

기억하고 있었다. 형부가 만드는 뱀이 궁금했다. 이미 정형화되어버린 다른 도시의 마스크트들이 몇 개 떠올랐다. 그 도식에 맞게 뱀을 끼워맞춘다는 일이 왜인지 이상하게도 느껴졌다. 가능이야 하겠지만……

형부는 뱀에 대해 알면 알수록 뱀이 무서워져서 그것이 어렵다고 했다. 뱀을 귀엽고 친숙하게 만드는 일을 하기 위해서 뱀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었고, 그러면서 그는 뱀을 무서워하게 되었다. 뱀은 허물을 벗고, 눈을 깜빡이지도 않고, 비늘이 있고, 기어다니고, 기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 그렇지만 아주 가까운 모든 곳에 도사리고 있고…… 뱀이 도시의 상징이 아니라 그저 뱀으로만 느껴져서 도저히 일을 해나갈 수가 없다고 했다.

오늘 공원에서는 개를 만났다. 개가 형부에게 달려들었고 개의 주인이 안아서 돌을 떼어 놓았다. 개는 작았는데 형부는 놀라서 넘어졌다가 일어났다. 개의 주인이 사과하자 형부는 웃었다. 인자해보이는 미소였다. 나와 형부가 동시에 고개를 끄덕이자 개의 주인은 떠나갔다.

다.

나에게는 무엇이든지 들이닥치는 것 같아.

개와 주인과 거리가 충분히 멀어지고나서 형부는 말했다. 나는 손으로 부채질을 하다가 형부를 쳐다보았다. 세상의 모든 것이 맞고 때리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할 때, 형부는 뻔히 자신에게 들어오는 공격을 보고서도 피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렇다고 아파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다만 맞고 때리는 굴레로부터 벗어난 사람처럼 군다.

\*

내일은 주말이었고, 그래서 우리는 저녁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다. 형부는 언니가 어째서 사라져버렸는지, 돌아오지 않는지 어렵듯이 알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자신이 무엇을 해야하는지는 도저히 알 수가 없다고도 말했다. 무엇을 사과해야 하는거지? 형부는 허공을 향해 중얼거리듯 물었다. 형부로서는 드물게 웃음기 없는 표정이었다.

우리는 썩은 장판 위에 수건 몇 장을 대충 올려두고 모르는 척을 하고 있었다. 마른 수건을 올려두어도 금새 썩어서 고인 물에 젖어 축축해지고 말았다. 냄새는 점점 심해졌고 이제는 정말 수리해야 할 때가 되었다는 느낌이 들었다. 무엇보다 언니가 이것때문에 돌아오지 않는 것인지도 모른다고, 적어도 형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는 손톱으로 이미 잔뜩 울룩불룩해져 버린 장판 위를 긁었다. 당연하지만 쉽게 떼어지지 않았다. 힘을 줄 때마다 모서리가 조금씩 일어나기는 했지만 절대로 떼어지지 않는 않았다. 한참을 그러고 있자니 형부의 이마 위로 땀이 흘렀다. 형부의 납작한 이마 위로. 그는 진지했다. 수건을 치우면 구멍이가 나을지도 모른다고 농담하던 얼굴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져 있었다. 언니가 보고싶냐고 내가 물었을 때의 얼굴도. 그는 그저 썩은 장판을 떼어내고자 했다. 그러더니 형부는 지금 당장 시트지를 사 오겠다고 했다. 장판을 떼어내고 썩은 부분을 닦아내고 새로 붙일 시트지를. 더이상은 미룰 수 없다고. 언제까지고 미루는 것이 그의 본성이지만, 이제 더는 그럴 수 없다고.

비가 오는데요?

나는 말했다.

알아요. 그는 단호하게 말했지만 잠시 머뭇거렸다. 방 한가운데서 조명을 받으며 나를 쳐다보았다. 창 밖으로 비가 꽤 거세게 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형부는 옷을 챙겨입었다. 그런 건 문제가 되지 않아, 그러면서 싱크대 앞의 썩은 장판을 큰 보폭으로 건넜다.

나는 형부를 배웅하는 모양새로 복도에 서서 바깥을 쳐다보았다. 빗방울에 나무들이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었다. 빗방울이 굼었다. 저 아래의 손가락 한 마디만한 사람들도 보이지 않을만큼. 그저 뿌옇게 무언가가 어른거린다는 것만 알 수 있었다.

혹시 내가 그를 말릴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는지 형부는 단호하게 행동했다. 아주 약간의 실랑이도 원하지 않으며 자신은 지금 시트지를 사 오고야 말겠다는 태도로 빠르게 움직였다. 형부는 혀로 입술에 침을 바르며 복도로 나갔다. 바깥으로 손을 내밀자 빗방울이 손에 부딪혀왔다. 좋아, 좋아. 형부는 중얼거렸다. 그는 왜인지 모르게 비장해보였다. 엘리베이터는 움직이지 않고 있었고 길에도 복도에도 사람은 없었다. 형부와 나 이외에는 아무도 없는 것 같았다. 사람들이 모두 뱀처럼 어디 숨어버린 것인지. 조용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어

다니고 있는 것인지.

다녀올게.

형부의 발자국 소리가 복도에 울렸다. 비 오는 날엔 소리가 더 크게 난다.

집 안으로 들어오니 형부가 쓰던 노트북이 켜져 있었다. 이부자리도 여전히 그대로였다. 그날 밤 나는 형부가 잠들던 이불 위에서 잠들었다. 먹다 남은 저녁 식사도 술도 정리하지 않고. 그날 밤 형부는 돌아오지 않았다.

\*

내가 잠든 사이 형부는 공원으로 향했다고 했다. 우산을 썼는데도 빗방울들이 튀어 발이 온통 젖었다고. 점점 더 비가 거세게 내리고 있었다. 시트지를 오늘 당장 사서 씌어버린 장판을 고치고야 말겠다고 마음먹고 나왔지만 막상 그걸 어디서 살 수 있는지도 모르고 있었다. 공원 건너에 인테리어 가게가 하나 있다는 걸 기억하고 있었을 뿐. 그곳에서 그런 것까지 취급하는지, 아니 지금까지 열려있거나 한 것인지 그런 것도 모르는 채였다. 그저 비가 온다는 말에 나온 것이었다…… 비 같은 것에 물러날 수 없다는 마음으로. 그래서 그는 갈 곳을 찾지 못한 채 우리가 매일 거닐던 공원만을 배회하고 있었다. 공원은 어두웠고, 공원의 나무들도 복도 아래의 까마득한 나무들과 또 집의 창밖에 있던 나무들처럼 춤추듯이 휘청이고 있었다. 바람이 세게 불었기 때문에 우산이 비를 제대로 막아주지 못하는 날씨였다.

애초에 이 도시의 마스코트가 뱀이 된 것도 뱀이 많이 살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조금만 수풀이 우거진 곳이면 쉽게 뱀 조심 푯말이 꽂혀있는 걸 볼 수 있었다. 형부가 비를 피해 잠시 앉아 있던 정자 뒤편의 수풀 더미에도 역시 같은 것이 있었다.

누구든 결혼할 때는 무언가를 포기한다.<sup>1)</sup> 언니가 무엇을 포기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는 결혼이 무언가를 포기하는 일인 줄 알지 못하고 있었다. 어쩌면 그것이 문제였을지도 모른다. 그가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은 것. 그는 정자 지붕 위로 빗방울이 부딪히는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다. 이제는 무엇인지 알 것 같다고.

어둠 속에 가만히 앉아 있자니 어디선가 뱀이 배를 스치며 기어다니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사방에서 비가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조용한 소리를 들을 수는 없는 거라고 나는 말했지만 형부는 분명히 들었다고 주장했다. 비가 지붕을 그리고 바닥을 두드리고 첩병이는 것과는 다른 소리를 분명 들었다고. 열에 들뜬 형부가 떠드는 소리기에 우선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실은 믿지 않았다. 그는 뱀을 무서워했고 그것에 압도당한 것처럼 보였다. 뱀을 귀엽고 친숙하게 만드는 일을 하기 위해서 뱀이란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었고 그러면서 그는 뱀을 무서워하게 되었기 때문에, 내 눈에는 그가 없는 것을 무서워하는 것처럼만 보였다.

뱀이 기어다니는 소리가 그에게로 점점 크게 다가왔다. 맨발로 장판 위를 스치듯 걷는 소리 같기도 했고 나의 언니가 내쉬는 숨소리 같기도 했다고. 그렇지만 이미 언니는 어딘가로 떠나버렸다.

형부는 생각했다. 더이상은 아니야. 이렇게는 아니야. 그러고는 우산을 손에 무기처럼 들었다. 뱀과 맞서기 위해. 대신 비는 온몸으로 다 맞았다. 비를 맞고 축축히 젖고 있으니 형

---

1) 버지니아 울프, 델러웨이 부인, 이태동, (시공사, 2020)

부는 자신이 대단한 모험이라도 하는 듯이 느껴졌을 것이다. 그동안의, 특히 언니가 알던 시절의 자신은 절대 하지 않을 짓이라고. 그는 언니도 아닌 누군가에게 증명하듯이 계속 나아갔다.

봐! 여길 보라고!

젖은 머리에서 흐른 물이 계속 눈으로 들어갔고 그래서 얼굴을 찡그리며 그가 외쳤다. 나와 보라니까! 긴 우산으로 얼마 없는 수풀 더미를 마구 들쭉시며 그는 화를 냈다. 작은 공원에는 사람이 없었고 비가 오는 날엔 소리가 더 멀리 울리는데도 형부의 외침을 듣는 사람은 없었다. 나타나지 않았다. 대신 뱀이 한 마리 있었던 모양인데, 형부가 마구 들쭉시는 것에 놀라 기어 나와 그를 문 것 같다고. 그의 몸에는 물린 자국이 어디에도 없지만 그는 그렇게 주장했다. 형부가 발견된 것은 새벽이었고, 다른 곳은 모두 무사하지만 젖은 채로 오래 있어 열이 여전히 높다. 언니는 나타나지 않았고, 형부는 여전히 뱀에 대한 이야기를 쉬지 않고 떠들 뿐이다.